

3 정책동향

1. 반도체·디스플레이 업계, 선제적 탄소중립 공동선언

○ 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

- 산업부(장관 성윤모)는 3.9(화), 서울 엘타워에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및 업계 대표기업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“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” 출범식을 개최하였음
 - “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”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로,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과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삼성디스플레이, LG디스플레이 등 업계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임
- 반도체·디스플레이 산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(Carbon heavy industries)*은 아니지만, 그간 최신 감축설비 투자, 대체 공정가스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감소해 왔음
 - * '18년 반도체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17.1백만톤(국가 전체 배출량의 2.35%, 산업부문 6위)
 - * '18년 디스플레이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14.1백만톤(국가 전체 배출량의 1.94%, 산업부문 7위)
- 반도체·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양 협회와 함께 대표기업 4개사*가 “2050 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 공동선언문”을 선제적으로 선언하여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 하는 의지를 표명함
 - * 반도체협회, 디스플레이협회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삼성디스플레이, 엘지디스플레이
- 그간 ST 마이크로(‘20.12)와 SK하이닉스(‘20.11)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RE100 가입을 진행하였으나, 이번에는 업계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한 것임
- 금번 공동선언문에는 ①혁신기술개발과 사회적 감축 기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제어기술,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, ②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공동과제를 지속 논의하며 ③세계반도체협회* 및 세계디스플레이 생산국 협의체**와 국제공조 강화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
 - * 세계반도체협회(WSC, World Semiconductor Council)
 - ** 세계디스플레이 생산국 협의체(WDICC, World Display Device Industry Cooperation Committee)
- 참석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 시켜 나가기로 약속함

2. 자동차반도체 업계간 연대·협력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 가속화

○ 자동차협회-반도체협회, 차량용 반도체 협력MOU 체결

-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,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3.17(수),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함
 - 오늘 양해각서 체결 및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대응을 위해 지난 3.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「미래차-반도체 연대·협력 협의체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
 -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요소인 차량용반도체의 국내 생산 제고를 위한 업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○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간 교류회 개최

-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▲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, ▲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·인증 지원, ▲양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,
 - 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
- 또한, 오늘 교류회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,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업체 및 네오와인, 라닉스 등 반도체 팹리스 업체 각 10 여개사 참석하여
 - 팹리스 업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·제품에 대한 데모 시연 후 관심기업별 비즈니스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음
-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“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”이라고 평가하고
 - “정부는 우리기업의 연대와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,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 나갈 것이라고” 함
- 한편, 산업부는 3.4일 발족한 “미래차-반도체 연대·협력 협의체”를 토대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, 3.10일 BIG3 회의시 발표한 「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
 -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분야의 산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3.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본격 추진

○ 관계부처 합동, 「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」 발표

- 정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「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」을 발표하였음

【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요 】

- ◇ 일시/장소 : '21. 3. 10(수) 10:00~11:20 /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
- ◇ 참석자 : (정부) 경제부총리, 산업부과기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관
(민간) 민간위원 4명
- ◇ 주요안건 : 「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」 외 3건

- 동 안건에는 「미래차-반도체 연대·협력 협의체*」(3.4일 출범)에서 논의한 ▲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과 ▲중장기 산업역량 강화, ▲자동차-반도체 기업간 연대·협력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하였으며,

* (참여기관) ▲수요기업(완성차사, 모듈·부품사), ▲공급기업(팹리스, 파운드리, 종합반도체社),
▲간사(자동차연구원, 자동차산업협회, 반도체산업협회)

-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기업간 연대·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후속조치*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.

* (예) ▲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, ▲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·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,
▲수요-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 개설 등

|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